

韓·日 村落에 대한 歷史地理的 比較研究—序說—

山 田 正 浩*

《目	次》
1. 序 論	5. 村落의 共有財産, 一族의 共有財産
2. 兩國의 村落規模와 空間構成	6. 村落景觀의 構成要素
3. 日本 近世村落의 社會階層과 營農規模	7. 結 論
4. 조선시대 후기의 村落社會階層과 營農規模	

1. 序 論

本稿의 目的은 조선시대, 특히 그 후기와 日本 江戸시대를 幷두에 두고 兩國 傳統村落의 기본적 構成要素를 要約하여 比較하면서 앞으로 筆者의 韓·日村落研究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함에 있다.

日本에 있어서의 村落연구는 地理學 이외에도 社會學 經濟史學 民俗學 등 수많은 연구축적이 있다. 그러나, 韓·日兩國의 村落에 대해서 명확하게 “比較”에 視點을 두고 행한 연구는 일제시대 말기 鈴木榮太郎의 연구가 唯一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敗戰후, 日本에서는 연구환경이 연구자들에게 “兩國의 比較研究”란 視點을 제공하지 않았고, 연구자들도 아시아에 대한 관심을 포기한 시기가 있었다. 따라서, “比較研究”란 分野는 그 大部分이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 남아있다. 日本의 立場에서 日本 村落의 分析과 이해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比較研究를 시도해 볼 때, 歷史的으로 또 文化的으로 관계가 깊은 韓國(더우기는 中國)을 제일 첫번째의 對象으로 해야함은 論할 여지가 없다. 本稿의 목적도 이러한 問題意識에서 출발하는 것

이다.

本稿에서는 ① 村落規模와 空間構成 ② 村落住民의 階層과 營農規模 ③ 村落의 共有財産 ④ 村落景觀의 構成요소 등 諸側面에서 兩國의 傳統村落을 對比하고자 한다.

本論을 진술하기 전에 日本 江戸시대 村落의 歷史的 特徵에 관해 간단히 說明하고자 한다. 日本 江戸시대(1603~1867)는 日本의 歷史區分에서 “近世”라고 불리우고, 또 그 시대의 정치 체제는 幕藩體制——幕府(중앙정권)와 藩(大名領)——라고 한다. 따라서 江戸시대의 村落은 “近世村” 또는 行政村으로서의 성격을 強調해서, “藩政村”이라고도 하며, 그 이전의 村落과 區別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行政村”으로서의 “村(Mura)”은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 먼저 자연적으로 성장되었던 村落(自然村, 自然部落, 村落共同體)을 이용한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藩政村이 하나의 自然村에 대응되며, 또 전형적인 集村地域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그것이 하나의 聚落에 대응된다. 그러나, 앞으로 진술하는 바와 같이 地域的인 차이가 적지 않다. 하나의 自然村이 行政村으로서의 기능이 주어진 것은 이전의 역사에서도 그리고 明治시대 이후에도 없으며 그것은 오로지 江戸시대 村落의 큰 특징

* 日本 愛知縣立大學 文學部 教授

1) 鈴木榮太郎의 韓國 落村에 관한 연구성과는 1973, 鈴木榮太郎著作集 V 朝鮮農村社會の研究 未來社에 收錄되어 있다. 그의 연구방법에 대해 “日本 村落에 대한 分析방법을 성급하게 韓國 村落에도 적용했다”는 批判이 있다. 崔在錫, 1975, 韓國 農村社會學研究 一志社, 참조.

이었다. 이러한 특징이 村落의 독립성, 통일성을 強化하는 결과가 되었고, 또 閉鎖적인 성격을 강화하기도 했다.²⁾ 江戸시대 초기에 확정된 藩政村은 그 시대에는 分割, 統合 등의 變化가 거의 없었으므로, 극히 固定的인 것이었다.

2. 兩國의 村落 規模와 空間構成

먼저 日本 傳統村落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日本 藩政村의 戶數규모와 공간구조적 측면, 藩政村과 自然村(自然部落), 그리고 藩政村과 聚落과의 대응관계에 대해서는 주로 明治시대 초기의 자료를 이용해서 행한 水津一朗, 山澄元, 田邊裕 등의 연구가 있다.³⁾ <표 1>에 掲載된 地方(國, Kuni)마다 藩政村의 평균호수규모는 山澄論文에서 轉載한 것이다.⁴⁾ 표에 의하면, 平均值는 50~100戶 사이에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마다 차이가 적지 않고, 특히 西日本에서 藩政村의 규모가 큰 경우가 많다. 물론, 이러한 藩政村의 규모의 大小가 그대로 自然村의 규모의 大小에 대응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村落(形式的村落)과 自然村(實質的村落)과의 대응관계를 고찰할 때에는 地方이나 각 藩에 있어서의 藩政村 設置原則의 차이 그리고 集村, 小村, 散村과 같은 村落形態의 차이, 이 밖에 村落共同體 成熟度の 차이 등 몇 가지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九州 南部의 薩摩, 大隅(現 鹿縣島縣)를 예로 들면, 이 지방에서는 沖積平野의 넓은 경지는 近世 이후에 개척된 곳이 많아서 中世부터 있었던 聚落들은 산간부, 小河川을 따라 散在하여 분포하였으며, 村落形態도 小村내지 散村이 卓越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경지개발과 이용을 위한 共同關係는 발달되지 못했으며, 村落共同體의 성장도 뒤졌다고 史料된

표 1. 1872年 日本 各地方의 1村當 平均 戶數規模

		戶數	順位			戶數	順位
山城	86	32	越中	43	67		
大和	62	54	越後	45	66		
河内	98	20	佐渡	63	53		
攝津	90	27	丹波	59	56		
和泉	110	16	丹後	79	39		
伊賀	95	22	但馬	56	58		
伊勢	80	36	困幡	52	62		
志摩	138	10	伯耆	47	64		
尾張	125	11	出雲	108	17		
三河	73	42	石見	106	19		
遠江	68	47	隱岐	88	28		
駿河	71	44	播磨	72	43		
甲斐	108	17	美作	76	41		
伊豆	87	31	備前	98	20		
相模	88	28	備中	92	24		
武藏	77	40	備後	153	8		
安房	92	24	安藝	248	3		
上總	68	47	周防	40	68		
下總	69	45	長門	29	71		
常陸	64	51	紀伊	84	33		
近江	84	33	淡路	118	13		
美濃	94	23	阿波	182	4		
飛騨	26	73	讚岐	281	2		
信濃	119	12	伊予	156	7		
上野	84	33	土佐	91	26		
下野	56	58	筑前	88	28		
磐城	54	61	筑後	80	36		
岩代	47	64	豊前	65	50		
陸前	111	15	豊後	142	9		
陸中	117	14	肥前	80	36		
陸奥	29	71	肥後	34	69		
羽前	64	51	日向	174	6		
羽後	69	45	大隅	181	5		
若狹	55	60	薩摩	319	1		
越前	48	63	壹岐	68	47		
加賀	60	55	對馬	34	69		
能登	58	57					

出處: 山澄元, 1982, 近世村落의 歷史地理, 柳原書店, p. 53.

- 예를 들면 明治시대 초기의 자료를 이용한 通婚圈 研究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村落內 通婚이 50~60%, 山間地域에서는 더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본다. 鈴木는 이러한 日本 村落의 閉鎖性에 비교해서 韓國 村落의 開放性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점에서 強調했다. ① 넓은 通婚圈, ② 定期市場에 있어서의 交易활동, ③ 郡을 單位로 했는 儒林의 활동.
- 水津一朗, 1964, 社會地理學의 基本問題, 大明堂.
山澄元, 1982, 近世村落의 歷史地理, 柳原書店.
田邊裕, 1964, "市申村規模의 地域的特徵," 人文地理, 16-4.
- 山澄元, 1982, 전계서, p. 53.

다.⁵⁾ 이러한 小聚落은 藩政村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되지 못했고, 薩摩藩에서는 “外城制”란 특수한 地方制度가 실시되었다. <표 1>를 보면 薩摩 藩政村 규모가 제일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상과 같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小村내지 散村이 卓越한 地域에서는 自然村의 경계가 集村지역보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동시에 村落共同體의 통일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藩政村을 설치했을 당시, 하나의 경우는 그 범위를 크게 정하고, 다른 하나의 경우는 그 반대로 작게 정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전자 예가 薩摩, 大隅, 肥後, 讀岐 등이며, 후자의 예가 周防과 長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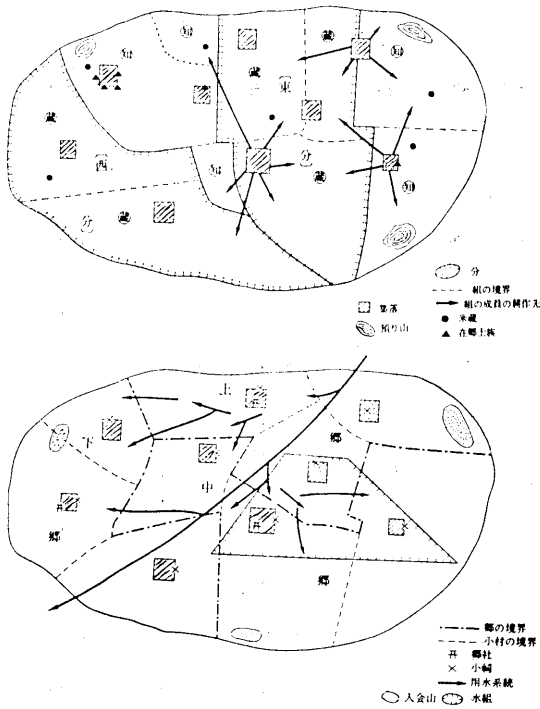


그림 1. 日本 藩政村의 모식도
(a) 形式地域 (b) 實質地域
(출처: 山澄元, 1982, 近世村村落的歷史地理, 柳林書店)

또, 山澄論文은 藩政村의 규모가 큰 경우와 작은 경우에 대하여 각각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藩政村, 自然村, 聚落간의 상호관계를 명확하게 제시했다.⁶⁾ <그림 1>은 그 一例로서 周防地方에 있어서의 村落의 공간구성을 도시한 것이다.

水津一朗은 전국적인 視野에서 藩政村 내부의 공간구성을 세 가지 형태로 분류했다.⁷⁾ “標準型”은 近畿地方 이동의 평어부 즉 전형적인 集村지역에 분포하는데, 序論에서 진술한 바와 같은 형태다. “須惠村(Sue-mura, 미국 인류학자 Embree, J.F.가 조사했던 九州 熊本縣에 위치하는 마을)⁸⁾型”은 하나의 藩政村이 복수 聚落으로 구성되며, 自然村적인 기능은 대부분 각각의 聚落이 보지하는 경우다. “煙山村(Kemuriyama-mura, 경제사학자 中村吉治가 조사한 東北地方 岩手縣에 위치하는 마을)⁹⁾型”은 須惠村처럼 一藩政村이 복수 聚落으로 구성되고는 있지만, 自然村적인 기능들이 藩政村에 吸收되여 버린 형태다.

韓國 傳統村落의 호수규모에 관해서는 筆者가 先稿에서 일제시대 초기의 통계를 이용해서 各道別 概數를 試算했다.¹⁰⁾ 그 論文에서는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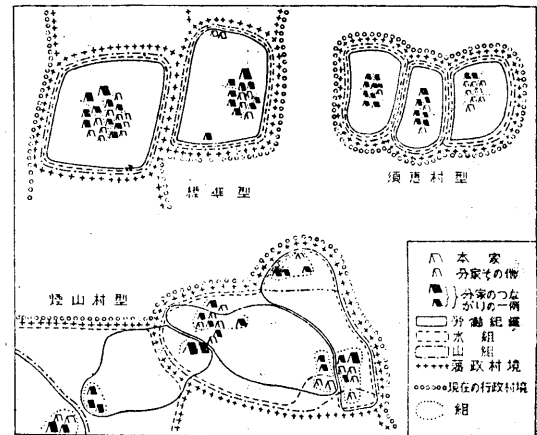


그림 2. 藩政村의 諸類型
(出處: 水津一朗, 1957, “村落制度,” 集落地理, 講座, 第1卷, p. 320에 의함)

- 5) 永原慶二, 1962, “中世村落の構造と領主制,” 稻垣, 永原 編, 中世の社會と經濟, 所收.
- 6) 山澄元, 1982, 前掲書.
- 7) 水津一朗, 1957, “村落制度,” 集落地理講座 第1卷, 朝倉書店, pp. 315~342.
- 8) Embree, J.F., 1939, *Sue Mura, A Japanese Villag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9) 中村吉治(編), 1956, 村落構造の史的分析.
- 10) 拙稿, 1980, “朝鮮の村落—洞里—の規模と空間構成について,” 愛知教育大學 地理學報告, Vol. 50.
——, 1988, “李朝時代(朝鮮時代)における村落の基本的構成要素とその機能について,” 愛知縣立大學 文學部論集, 第36號.

표 2. 일제시대 초기 洞里와 聚落의 戶數規模

(a) 1912年 洞里의 戶數規模

道	各	洞 里 數	戶 數	1 洞 里 當 戶 數
京 畿 道		4,387(4,666)	265,100	60.4(56.8)
忠 清 北 道		3,729	132,000	35.4
忠 清 南 道		7,505	205,900	27.4
全 羅 北 道		7,147	210,700	29.5
全 羅 南 道		10,177	337,700	33.2
慶 尙 北 道		6,871(7,400)	344,000	50.1(46.5)
慶 尙 南 道		4,037(4,855)	303,600	75.2(62.5)
黃 海 道		3,890	232,900	59.9
平 安 南 道		2,279(2,958)	183,000	80.3(61.9)
平 安 北 道		2,980	192,200	64.5
江 原 道		3,087	178,800	57.9
咸 鏡 南 道		3,262	180,200	55.2
咸 鏡 北 道		1,475	79,600	54.0
計		60,826	2,726,900	44.8

資料：()內는 1910年の 수치, 大正三年總督府統計要覽과 善生永助의 朝鮮의 聚落 前編, p.536의 자료를 이 용해서 筆者作成

(b) 規模別의 聚落數와 그 比率

道 名	合計數	30戶以下 의 集落數	そ の 内 譯		30戶以上 의 集團數	そ の 内 譯			
			~10戶	~30戶		~60戶	~100戶	~150戶	150戶~
京 畿 道	347	164 (46.4)	38 (11.0)	123 (35.4)	186 (53.6)	115 (33.1)	51 (14.7)	11 (3.2)	9 (2.6)
忠 清 北 道	400	238 (59.5)	46 (11.5)	192 (48.0)	162 (40.5)	113 (28.3)	37 (9.3)	9 (2.3)	3 (0.8)
忠 清 南 道	948	685 (72.3)	186 (19.6)	499 (52.6)	263 (27.7)	220 (23.2)	40 (4.2)	2 (0.2)	1 (0.1)
全 羅 北 道	661	354 (53.6)	114 (17.2)	240 (36.3)	307 (46.4)	216 (32.7)	63 (9.5)	24 (3.6)	4 (0.6)
全 羅 南 道	713	390 (54.7)	93 (13.0)	297 (41.7)	323 (45.3)	219 (30.7)	68 (9.5)	22 (3.1)	14 (2.0)
慶 尙 北 道	566	237 (41.9)	44 (7.8)	193 (34.1)	329 (58.1)	187 (33.0)	98 (17.3)	33 (5.8)	11 (1.9)
慶 尙 南 道	495	159 (32.1)	26 (5.3)	133 (26.9)	336 (67.9)	168 (33.9)	112 (22.6)	39 (7.9)	17 (3.4)
黃 海 道	648	398 (61.4)	109 (16.8)	289 (44.6)	250 (38.6)	170 (26.2)	51 (7.9)	17 (2.6)	12 (1.9)
平 安 南 道	587	295 (50.3)	84 (14.3)	211 (35.9)	292 (49.7)	192 (32.7)	73 (12.4)	16 (2.7)	11 (1.9)
平 安 北 道	504	295 (58.5)	42 (8.3)	253 (50.2)	209 (41.5)	149 (29.6)	36 (7.1)	22 (4.4)	2 (0.4)
江 原 道	594	435 (73.2)	182 (30.6)	253 (42.6)	159 (26.8)	114 (19.2)	34 (5.7)	8 (1.3)	3 (0.5)
咸 鏡 南 道	842	509 (60.5)	133 (15.8)	376 (44.7)	333 (39.5)	234 (27.8)	73 (8.7)	18 (2.1)	8 (1.0)
咸 鏡 北 道	792	564 (71.2)	188 (23.7)	376 (47.5)	228 (28.8)	156 (19.7)	54 (6.8)	11 (1.4)	7 (0.9)
合 計	8,097	4,720 (58.3)	1,285 (15.9)	3,435 (42.4)	3,377 (41.7)	2,253 (27.8)	790 (9.8)	232 (2.9)	102 (1.3)

資料：善生永助, 朝鮮의 聚落 前編, pp.275~285의 통계 자료를 道別로 表示했음. 合計數는 전체의 8~10% 정도 라고 推定됨. ()內는 合計數에 대한 比率(%)

1914年 區劃改正 後의 洞面——新洞里, (B) 改正 前, 舊韓末의 洞里——舊洞里, (C) 聚落, 세 가지로 정리해서 각각 평균호수규모와 지역차를 고찰했다. 결과만을 요약하면, ① 구한 말기의 洞里(B)는 호수규모의 전국평균치가 약 45戶 정도, ② 평균치가 크게 나타난 지역은 慶尙南道, 平安南道·北道, 京畿道 등이었으며, 작게 나타난 경우가 忠淸南道·北道, 全羅南道·北道이었다. ③ 聚落(C)의 호수규모에 관해서는 10~30戶에 해당하는 聚落이 전체의 42.4%로 가장 많았고, 30~60戶의 聚落은 27.2%이었으며, 兩者를 합하면 전체의 70.2%에 달했다. ④ 30戶 이상의 聚落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道는 京畿, 慶尙南·北道 3道밖에 없에서 이 지역이 상대적으로 聚落규모가 큰 지역이었다고 생각된다. ⑤ 聚落규모가 작게 나타난 지역은 江原道, 忠淸南道, 咸鏡北道 등이며, 30戶 이하의 聚落의 비율은 각각 73.2%, 72.3%, 71.2%였다. 이 지방이 小村내의 散村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卓越한 지역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新洞里, 舊洞里, 聚落, 自然部落(自然村) 등의 상호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었는가를 고찰해야 된다. 이 점에 관해 鈴木는 忠北堤川郡下의 村落조사에 따라 구체적인 圖式을 제시했고¹¹⁾, 李萬甲은 京畿道 廣州郡, 龍仁郡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라 行政的洞里(形式的里, 筆者의 “新洞里”에 해당함), 自然村(實質的里), 마을, 三者의 상호관계를 진술했다.¹²⁾ 兩者의 調査地에서는 하나의 自然村이 그대로 하나의 舊洞里에 해당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新洞里가 몇 개 舊洞里를 포함하고, 하나의 舊洞里(自然村)가 하나나 두세 개 聚落을 포함 했다는 형태였다.

조선시대의 “里”¹³⁾는 먼저 제도적으로 설정된 것이며, 원래는 형식성이 강한 것이었다. 후기에 들어와서 점차 里의 分割이 진행되어서 총수도 많아졌으며, 이러한 現象을 “제도적(형식적)인 里가 점차 實質的인 里(自然部落, 自然村)에 비슷해져 갔던 과정”이라고 表現할 수가 있다. 筆者의 약간의 분석에 의하면 전국에서 京畿道, 忠淸道 등 中部지방의 “里의 分割”이 가장 일찍부터 진행되었다고 생각되며, 이 지방(특히, 평야부 集村지대)에는 自然部落과 舊洞里가 1:1로 대응한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北道 지방이나 東部 山間地方에서는 그 형식성이 구한말에도 명백하게 남아있었을 것이다.¹⁴⁾ 그러므로, 이상과 같은 제도적인 里와 自然部落간의 대응관계를 살펴볼 때는 반드시 地域差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¹⁵⁾ 崔在錫은 이러한 상호관계에 관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대체로 平均 두 個 내지 세 個의 自然部落이 結合하여 하나의 行政的인 統一體인 行政部落을 構成하고……”, 또 “하나의 聚落이 自然部落을 形成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몇 개의 小聚落이 自然部落을 이루고 있는 경우도 있다.”¹⁶⁾

3. 日本 近世村落의 社會階層과 營農規模

日本 近世村落의 階層구성은 중세 말기(戰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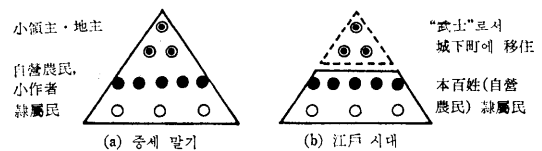


그림 3. 日本 中世 말기와 江戶시대에 있어서의 村蘇 階層構造의 모식도

11) 鈴木榮太郎, 1973, 전제서, p.13.

12) 本萬甲, 1960, 韓國農村의 社會構進(韓國研究叢書 5).

13) 朝鮮시대 “里制”의 變遷과정에 관해서는 金俊亨, 1984, “18세기 里定法의 展開”, 震禮學報, 第58號.

14) 구한 말기나 일제시대 초기의 洞里에 관한 자료를 참조하면, 黃海道에서는(일부 京畿道, 江原道에서도), “一里”, “二里”, “三里”와 같은 名稱이 많이 기재되었는데, “里”의 제도적인 형식적인 측면을 反映한 名稱이다.

15) 筆者는 일제시대 초기의 新·舊洞里와 聚落에 관한 자료나 地形圖 讀圖에 의하면서, 三者간의 상호관계를 다섯 개 類型으로 分類했다(註 10). 전제 論文). 北道지방, 특히 咸鏡道나 平安北道에서 지역적인 차이가 컸을 것이다.

16) 崔在錫, 1975, 전제서, pp.66~67.

시대)부터 점차 시행된 兵農分離政策에 의해 크게 규정되었다. <그림 3>은 중세 말기와 近世 초기 村落의 社會階層 변화를 도식화한 것이다. (a)에 나타난 상부階層 즉 小領主나 地主層은 戰鬪時 “武士”가 된 계층으로서 여기서는 아직 兵農未分離의 상태를 보여 준다. 戰國大名들은 세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小領主, 地主層을 순차적으로 자기 家臣團에 편입시켰다. 즉, 이것이 兵農分離의 과정입과 동시에 武士, 農民 각각의 신분 고정화의 과정이었다. 江戸시대에 들어와서 大名의 家臣團에 편입된 武士들은 大名이 居住한 “城下町”에 移住함으로써 村落에 있어서의 “在地性”을 상실해 버렸다. 따라서 近世村落에는 소규모의 자영농민(本百姓, Honbyakushō)을 중심으로 약간의 예속민들을 포함하는 계층구성이 형성되었다(그림 3-b).

이상에서와 같이, 近世村落에서는 “本百姓”들이 농업경영의 주체였다. 그들은 數反步내지 1

町數反步의 경지를 주로 가족 노동력으로 경영했을 것이다.¹⁷⁾ <표 3>은 備前(現 岡山縣) 지방의 江戸시대 초기 村落 階層구성에 관한 하나의 자료다.¹⁸⁾ 이 자료에 의하면 1653年 당시, “與兵衛”만은 下人 다섯 명을 이용하여 3町步余의 경지를 경영한 中世的인 豪農 성격을 보지한 예지만, 나머지 농가의 경영규모는 대부분이 1町步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또 1645년에 비교하면 下人 노동력을 이용한 농가가 감소했다는 경향을 알 수 있다.

<그림 4>는 關東지방에 있는 두개 村落의 社會階層이 江戸시대에 있어서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보여주는 도식이다.¹⁹⁾ 江戸시대를 통해 농가의 대부분이 “本百姓”이며, 특히 (b) 村落에서는 후기에 들어와서 농가 모두가 “本百姓”이 되었다.

물론, 도식화된 “本百姓”은 社會身分으로서 본 것이며, 그 시대를 통해 각 농가의 소유규모

표 3. 17세기 중엽에 있어서의 日本 岡山地方 1村落의 村落構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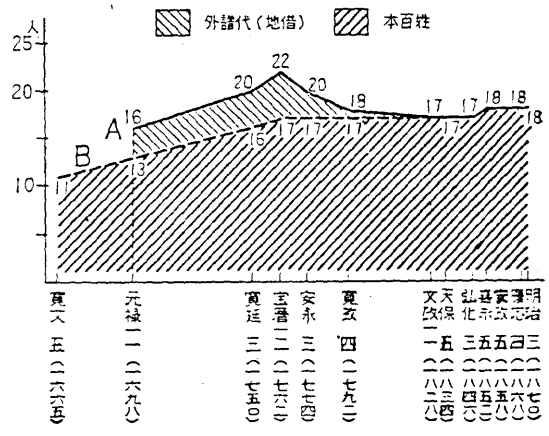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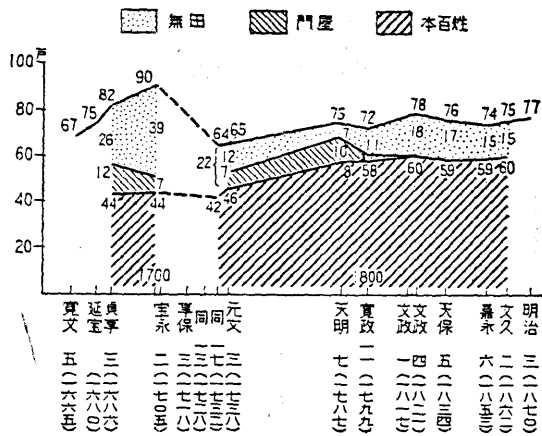
正保 2年(1645)		慶安 4年(1651)		承應 2年(1653)			
百 姓 名	各子 下人 馬	百 姓 名	下人 馬	百 姓 名	下人 馬	石 高	面 積
與 兵 衛	1 2 1	與 兵 衛	3 1	與 兵 衛	5 0	47.817.5	石反畝步 303.05
久 八	2 1 1	又 十 郎		金 藏		6.766.0	38.26.5
世 熊	1	久 八	1 0	□ 七 郎		18.611.5	112.06.5
源 十 郎		傳 三 郎	1 1	二 郎右衛門	1 1	16.909.0	110.24.0
太郎左衛門		與 助		與 助		5.696.5	33.16.0
惣右衛門		喜 助		喜 介		7.148.9	46.28.0
長 二 郎	1	源 十 郎		源 七 益		11.679.0	74.10.5
仁 助	1	太郎左衛門		太郎左衛門	1	21.761.3	139.02.0
長 兵 衛		惣右衛門		惣右衛門		7.823.4	49.26.0
又右衛門		惣 二 郎		五 郎 七		6.086.0	36.07.5
		長 二 郎		長 二 郎		13.773.0	85.05.5
		仁 助		□		14.296.4	83.25.5
		長 兵 衛		與 右衛門		9.606.6	57.24.0
		△ △ △ △		□		17.490.6	107.18.0
		久 三 郎		仁 兵 衛		8.873.5	57.05.0
		二 郎 介		二 郎 介		5.255.5	32.14.0
計	5 3 3	計	5 2	計	6 2	219.594.7	1369.04.0

出處：藤岡謙二郎編, 1977, 日本歷史地理總說 近世編, p.96에 의함.

17) 小野武夫, 1936, 日本村落史概說, 岩波書店, p.142.

18) 藤岡謙二郎(編), 1977, 日本歷史地理總說近世編, 吉川弘文館, p.96.

19) 淺香幸雄, 1957, “近世農村の構造,” 歷史地理學講座, 第3卷, 朝倉書店, pp.251~252.



(a) 午津島村 (b) 廣川村
 그림 4. 日本 關東地方 두개 村落에 있어서의 江戸시대 戶數變化
 (出處: 淺香幸雄, 1957, “近世農村の構造”, 歷史地理學講座, 第3卷)

표 4. 日本 關西地方 村落에 있어서의 江戸시대 階層構成의 變化

(a) 木古庭村

年次(西紀)	資料	總戶數	階層構成				
			石 1.9>	石 2.0<	石 5.0<	石 10.0<	石 20.0<
文祿 3(1594)	檢地帳	27	3	9	11	3	1
元祿12(1699)	同	60	10	30	16	3	14
天保 4(1833)	五人組帳	59	20	21	15	2	1
安政 5(1858)	宗門人別帳	66	16	34	15	0	1
明治 2(1866)	同	66	16	34	15	0	1

(b) 永田村

年次(西紀)	總數	階層區分				
		0石	石 4.9>	石 5.0<	石 10.0<	石 30.0<
寛永 3(1663)	54	2	14	30	5	1
元祿17(1704)	56	4	20	26	7	1
天明 3(1783)	63	2	37	15	5	1
安政 4(1857)	58	5	35	9	9	1

(出處: 淺香幸雄, 1957, “近世農村の構造”, 歷史地理學講座, 第3卷, pp. 251~252에 의함)

의 변화에 의한 階層分化가 진행되었다.²⁰⁾ (a) 村落에서는 上層농가수는 변화가 없었으나 5石²¹⁾ 이하의 下層농가수는 증가했다. (b) 村落에서는 후기에 들어오에 따라 10石 이상의 上層농가와 5石 이하의 下層농가 모두가 증가했는데, 명확하게 兩極分化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大阪지방

과 같은 당시 經濟的 선진지역에서는 일적부더 商品生産(綿作이 대표적인 것임)이 浸透하며 그에 따라 농가의 階層分化가 크게 나타났고, 江戸시대 말기에는 많은 大地主들이 出現하기도 했다.

20) 淺香幸雄, 1957, 上掲論文.

21) “1石”은 면적으로 表現하면 1.0~1.5反 정도.

4. 조선시대 후기의 村落 社會階層과 營農規模

조선시대 村落 주민의 社會階層은 신분제로서 의 관점에서 보면, 兩班(土班), 常民, 奴婢이며, 그리고 이것이 토지소유형태에서 본 地主, 自營農民·소작자, 僱傭農민에 대응하는 구조였다.

金鴻植 연구²²⁾에 의하면, 조선시대의 生産關係는 農莊制(노비노동력을 이용한 대토지경영)에서 並作制, 즉 佃戶(地主의 지배하에 편입된 沒落良民)들의 소농경영으로 변화하며 18세기 이후에는 賭地法(定額小作)이 나타났다고 설명되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日本의 近世村落은 원칙적으로는 중세의 在地豪族(武士)이 “城下町”에 移住하여, 在地性을 상실한 후에는 “本百姓”들의 수평적, 자연적인 공동체로 認識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韓·日 兩國간에 村落의 社會構造적 차이는 상당히 컸을 것이다.

또, 이러한 조선시대의 村落 階層구조는 村落內的 구조로서 把握될 뿐만 아니라, 村落 상호간의 구조로서도 把握된다. 이것이 즉, “班村”과 “民村”의 구별이며, 李廷根은 이와 같은 村落간 구조를 세 가지 형태로 설명했다.²³⁾ 동논문은 慶北 良洞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이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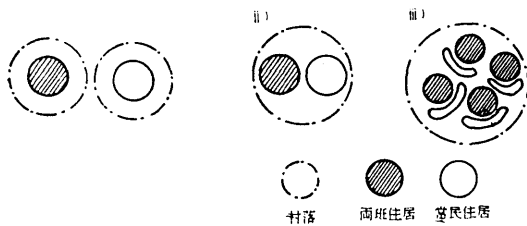


그림 5. 階層別 住居分布의 세가지 형태

(出處: 李廷根, 1978, “韓國自然部落의 形態空間論”, 蔚山工業大研究論文集, 9-2. 一部 修正했음)

은 제 3 형태에 해당되었다. 또, 班村은 특정한 一族이 집중적으로 居住한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소위 “同族村落”이다. 이것이 韓國의 村落發達史를 고찰할 때, 큰 특징의 하나이며, 이것도 韓·日 兩國의 村落歷史에 있어서 차이점의 하나이다.

구한 말기 日人이 작성한 『韓國土地農產調查報告』²⁴⁾를 참조하면, 당시의 토지소유 실태에 대한 概括的인 기술이 있다. 中部지방(京畿, 忠淸, 江原)에 대하여는 모두 70개의 사례가 掲載되어 있는데, 많을 경우 소작농이 70%내지 80% 또는 그 이상이라고 진술되어 있다. 그 반면, 江原道에는 “모두가 자작임(淮陽郡)”, “자작자가 많음(平康郡)” 등의 기술이 있어서, 他地方에 비교해서 소규모 자작농의 비율이 높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²⁵⁾ 그리고, 중부지방의 地主에 대해서는 “地主는 京城人임”, “地主는 京城에 居住하는 자가 많음” 등의 기술이 많이 등장하며(70개 사례중 45개)²⁶⁾ 서울에 근접하는 지방에는 地主의 “不在地主化가 進行되어 그 대부분이 서울에 居住했던 官人들이었음을 알려 주고 있다. 여기서는 地主—小作이란 生産關係가 하나의 村落이나 하나의 郡內가 아니고,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廣範圍한 지역에 걸쳐서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南部지방에서도 中部지방과 같이 광범위한 地主—小作 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기술이 있으나, “많은 地主는 邑內에 居住함(全羅南道 長城郡)”, “地主는 대부분 大邱人임(慶尙北道 玄風郡)” 등으로 보아, 地主가 지방 중심 도시의 居住者인 경우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²⁷⁾ 北部지방에 대해서 소작자 비율이 약 60~70%이라고 진술되어 있는 것은 다른 지방과 비슷하다. 咸鏡道만은 그 비율이 약 50%이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이것은 江原道와 같이 자작자의 비율이 좀 높았을 것 같다.²⁸⁾

22) 金鴻植, 1983, 朝鮮時代 封建社會의 基本構造, 博英社.

23) 李廷根, 1972, 韓國 自然部落의 空間構造, 서울大學校 大學院(建築工學科) 碩士論文.

——, 1978, “韓國 自然部落의 形態空間論,” 蔚山工業大 研究論文集, 9-2.

24) 日本 農商務省(編), 1906, 韓國土地農產調查報告.

25) 日本農商務省, 1906, 전게서. 京畿·忠淸·江原道 pp. 259~265.

26) 註 25) 同一個所.

27) 日本農商務省, 1906, 전게서. 慶尙·全羅道 pp. 247~249.

28) 日本農商務省, 1906, 전게서, 咸鏡道 p.102.

표 5. 구한말기 중부지방에 있어서의 농가 1戶당 평균경영면적

	田		畑			合 計
	韓 稱	日 稱	韓 稱	日 稱	日 稱	
京 畿 道	斗落 17.8	町反畝步 .8.8.24	日耕 2.2	斗落 8.0	町反畝步 .9.1.05	町反畝步 1.7.9.29
忠 清 南 道	20.8	1.0.4.08	1.7	12.2	.6.1.23	1.6.6.01
忠 清 北 道	13.7	.6.8.15	1.8	16.3	.7.4.15	1.4.3.00
江 原 道	13.8	.6.8.23	3.3	10.0	1.1.2.15	1.8.1.08
平 均	16.5	.8.2.12	2.3	12.8	.8.8.01	1.6.7.17

(出處：日本 農商務省, 1906, 韓國土地產業調查報告, 京畿道, 忠清道, 江原道, pp. 411~412에 의함. 表示一部修正했음)

구한말까지 토지의 廣·狹을 “結”, “日耕” 또는 “斗落”으로 표현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당시 경영규모에 대해, 정확한 면적으로 알려 주는 자료가 적다. 전계의 『調査報告』 중에는 “斗落”, “日耕”을 지방에 따라 면적으로 환산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자료를 근거하여 진술하고자 한다.

표 5는 中部지방 各道마다 경영규모 평균지를 제공한 것이다. 4道の 평균지는 논이 8反 2畝 12步, 밭이 8反 8畝 01步이었으므로 이것을 합하면 농가 1戶당 경영규모는 1町 6反 7畝 17步가 되었다(여기서는 1日耕은 4反, 1斗落은 5畝로 환산됨). 山地가 卓越한 江原道の 경우는 경영규모가 다른 지방보다 약간 컸으며, 또 밭의 면적이 논 면적의 2배 정도였다. 나머지 3道の 경영규모는 모두 평균지와 비슷하여, 약 1町 5反步 정도이었으며, 논과 밭의 비율은 京畿, 忠北의 경우는 10:1, 그리고 忠南에 있어서는 약 2:1이었다.²⁹⁾ 전계 金鴻植의 연구에는 18세기 말기 당시의 忠清道 沔川郡의 1戶당 경영규모가 제공되어 있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논이 21斗 5斤, 밭이 28斗 2斤 합쳐서 49.7斗落이었다. 이것을 1斗落 당 5畝로서 환산하면, 각각 10.75反, 14.1反, 24.85反이 되어서, 전술 『報告』의 수치보다 좀 더 큰 수치가 된다.³⁰⁾

南部지방에 대해서는 모두 24개의 사례가 기재되어 있으며, 그 결론만을 인용하면 “1戶의

경작면적은 5反步 내지 2町步 사이에 해당하며, 그중 1町步 내지 2町步를 경작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하며, 中部지방의 조사지와 비슷한 결과가 되었다.³¹⁾ 北部지방에 관한 조사사례는 많지 않아서, 모두 합쳐도 19예에 불과하다. 平安道지방의 조사 결과를 보면 논이 8反 7畝 24步, 밭이 2町 8反 8畝, 합쳐서 3町 7反 5畝란 평균지가 제시되었다. 黃海道の 경우 平均규모가 약 3町步이며, 咸鏡道는 5町 9反 2畝이었다.³²⁾

이상의 고찰에 따라, 구한 말기의 농가 평균 경작면적에 관해 간단히 요약하면, 中·南部지방에서는 약 1.5町步, 논과 밭의 비율은 1:1, 北部지방에는 3~5町步, 논과 밭의 비율이 20~30% 정도였다고 생각될 것이다. 中·南部지방의 평균 경작면적은 東日本과 비슷하다. 北部지방의 경작규모가 크게 나타난 것은 밭의 비율이 높았다는 점, 廣範圍한 火田을 포함했다는 점 등의 요인에 의한다고 생각될 수 있다.

5. 村落의 共有財産, 一族의 共有財産

전통村落이 갖는 특질의 하나로 공유재산의 보유를 들 수가 있다. 韓國의 村落을 보면 地緣集團으로서의 村落이 갖는 공유재산 뿐만 아니라 그 밖에 一族이 소유하는 공유재산도 광범위하게 형성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선시대에 있어서 유력한 村落이 兩班階層의 同族村落 형

29) 日本農商務省, 1906, 전계서, pp. 407~412.

30) 金鴻植, 1983, 전계서, p. 262.

31) 日本農商務省, 1906, 전계서, p. 340.

32) 日本農商務省, 1906, 전계서, 平安道 pp. 175~176. 黃海道 pp. 123~124. 咸鏡道 pp. 136~137.

태를 취한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이 그 하나의 요인으로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 梁會水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³³⁾ “韓國村落을 一般的으로 論한다면 部落의 氏族에는 氏族마다에 大概 氏族共有의 林野나 田地, 墓地, 財産 등이 屬하고 있었으나, 그러나 다시 이들의 氏族財産 外에 一般的으로 部落全體의 共有財産도 嚴然히 存在하고……”, 또 金鴻植은 “이조권력은 국초부터 법률로써 일반 산림의 私有獨占을 엄금하고 있었으나, 並作制의 진전에 따르는 土地私有化의 發展은 山林에 까지 그 영향을 미쳐, 각지의 權門豪族에 대해서는 中期 이후 그 私占을 허용한 立案·立旨·完文 등의 官文書가 地方官인 觀察使나 守令에 의해 다수 발급되었고……(中略)……일정한 산림에 대한 入會權을 스스로 지켜야 할 수단을 전혀 지니지 못한 대부분의 佃戶들은 權門勢家에 대항하는 방법으로서 어떤 형태로서든 집단적 활동을 찾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고 말하며³⁴⁾, 공유재산의 형성과정과 階層간의 對抗關係를 설명하고 있다.

日本 전통사회는 同族集團의 組織은 강하지 않았고, 社會組織 중에서도 중요하고 커다란 지위를 차지하지 못했다. 따라서, 同族에 속하는

재산의 형성도 발달하지 못했고, 墓地, 神社 등 몇 가지 공유재산이 있을 뿐이다. 그들도 경제적인 價値는 거의 없었다. 그 대신 대표적인 공유재산이 地緣共同體로서의 村落에 속하는 林野(入會地, Iriaichi)였다. 江戸시대에는 산림의 私有화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산림은 村落공유지나 無主地였다. 전통村落에는 村落마다 반드시 入會地가 있었으며, 몇 개의 村落이 공동으로 하나의 入會地를 공유하는 경우도 있었다. 入會地의 주요한 기능을 大別하면 ① 建築用材 또는 燃料로서 나무 採取, ② 肥料 혹은 窒材材料로서의 풀 採取, ③ 補助食糧의 採取 등을 들 수 있다. 入會地의 이용권, 이용방법 등에 관해서는 村落마다 구체적인 慣習法이 있었으며, 주민들은 그에 따라 일상생활이나 생산활동을 영위했던 것이다.

6. 村落景觀의 構成要素

마지막으로 村落을 구성하는 景觀的 요소에 관한 고찰을 하고자 한다. <그림 6>에는 韓國의 村落立地, 村落景觀 등을 논한 논문 중에서 모식도화한 것 세개를 인용했다.³⁵⁾ <그림 7>은 日本의 集王지역에 있어서의 표준적인 村落을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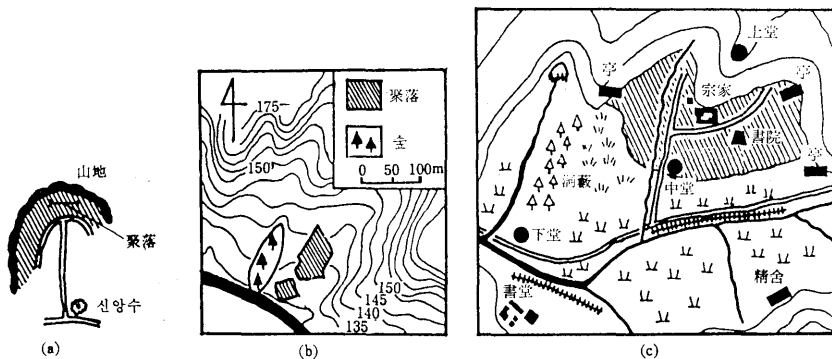


그림 6. 한국 전통村落에 있어서의 立地와 景視構成에 관한 模式圖

出處: (a) 曹成基, 1979, “農村自然部落의 聚落形態에 관한 연구,” 建築, 第88號.

(b) 柳濟憲, 1979, “農村景觀의 形態의 研究,” 地理學論叢, 第6條.

(c) 金德鉉, 1983, “氏族村落의 形成過程과 立地 및 儒敎文化觀,” 地理學論叢, 第10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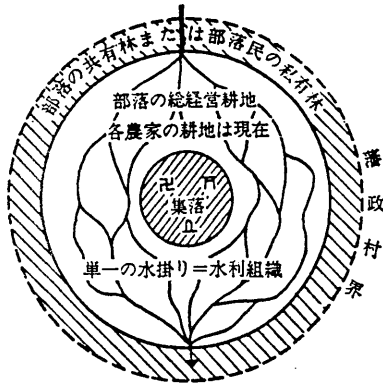
33) 梁會水, 1967, 韓國農村의 村落構造, 高麗大出版部, p. 379.

34) 金鴻植, 1983, 전계서, pp. 278~279.

35) (a) 曹成基, 1979, “農村自然部落의 聚落形態에 관한 研究,” 建築, 第88號.

(b) 柳濟憲, 1979, “農村景觀의 形態의 研究,” 地理學論叢, 第6號.

(c) 金德鉉, 1983, “氏族村落의 形成過程과 立地 및 儒敎文化觀,” 地理學論叢, 第10號.



- ㉑ 村(部落)限りの禊祓寺
- ㉒ 村(部落)の氏神
- ㉓ 村(部落)の共同墓地

그림 7. 日本 集落地域에 있어서의 藩政村의 모식도
 出處: 石原潤, 1965, “集落形態と村落共同體,” 人文地理, 17-1.

식화한 것이다.³⁶⁾ 조선시대는 유교가 단순한 학문적 役割 뿐만 아니라 道德律, 社會規範으로서 사회의 구성구석까지 浸透, 定着한 시대이며, 韓國 村落景觀에 있어서도 “儒敎文化景觀”이 卓越한 점에 큰 특징이 있다. 특히, 그것이 “民村”보다 “班村”에서 명백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日本の 村落에는 神社와 寺院이 村落구성요소인 중심이며, 村落사회의 核으로서의 役割을 했다. 村落 주민들은 神社와는 그 祭祀組織(官座, Miyaza)의 구성원으로서, 寺院과는 信者集團(檀家, Danka)의 구성원으로서 깊은 상호관계 하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다. 韓·日 전통村落을 景觀的인 면에 면 비교하면, 이상과 같은 점이 가장 큰 차이가 있다. 이하는 그림 6과 7를 참고하면서 村落景觀의 구성에 관해 概觀하고자 한다.

○ 村落의 立地 그림 6-(a), (b), (c) 모두가 이른바 “背山臨流”형의 村落 立地를 염두에 두고 그린 것이며, 柳濟憲은 “골型”이라고 명명했다.³⁷⁾ 韓國에서는 新羅시대 以來의 文化遺産으로서의 風水思想이 지금도 定着되어 있으며, 筆

者와 같은 외국인인 村落立地를 해석할 경우라든가, 立地理念을 이해할 경우에도 風水思想에 대한 깊은 知識과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日本에는 본격적인 風水思想은 들어오지 않았으며, 겨우 方位에 따라 吉凶을 논할 정도였다. 日本에서도 물론 山麓 南斜面이 村落立地에 가장 좋은 곳이었다고 생각되나, 그것이 防風, 日照條件, 氣溫 등, 環境條條에 의한 해석이었으며, 風水思想에 由來하는 것은 아니었다.

○ 村落의 林地 그림 6-(b), (c)에는 洞藪가 表示되어 있으며, 전계 柳濟憲論文과 金德鉉論文이 그 기능을 논술하고 있다.³⁸⁾ 洞藪의 기능은 防風林으로서, 혹은 燃料, 建築材로서의 이용등 실용적인 기능과 風水說 속에 나타나는 “裨補”思想에서 由來한 文化적인 기능으로 요약될 것이다. 柳는문에 의하면 그것은 동시에 山祭를 올리는 장소로서의 기능도 갖고 있었다.

日本에서는 “마을의 숲”의 하나의 예로서 東京 西郊 武藏野臺地에 있는 新田村落(江戸시대에 새로 개척된 村落)의 防風林이 유명하다(林隙村, Waldhufendorf)³⁹⁾, 그것이 개척과정에서 自然林의 일부를 防風을 위해 그대로 남긴 것이라고 생각되어 韓國, 洞藪와 같이 風水說에 의한 文化적인 기능과 신앙에 관한 기능 등은 없었다. 日本에서는 “마을의 숲”보다 집집마다 垞地 周邊에 나무를 심은 “屋敷林”이 각지에 분포하며, 지역에 따라 높은 분포密度를 보이는 경우도 있으며(예를 들면 北陸地方 破波散村地域, 手取川扇狀地, 黒部川扇狀地 등), 樹種은 느티나무가 일반적이다.

日本 전통村落에서는 일상생활이나 생산활동과 결부된 林野 이용의 대상은 村落 周邊에 위치하는 村落공유지(그림 7, 前項 참조)가 보통이었다. 또, 神社에 林地가 속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으며, 거기는 명백하게 神域으로서의 성격을 띠었을 것이다.

韓國 村落의 儒敎景觀과 日本 村落에 있어서의 神社와 寺院 韓國 村落에 있어서는 유

36) 石原潤, 1965, “集落形態と村落共同體,” 人文地理 17-1.

37) 註 35)의 전계논문.

38) 柳濟憲, 1979, 전계논문. 金德鉉, 1986, “傳統村落의 洞數에 관한 연구,” 地理學論叢, 第13號.

39) 矢島仁吉, 1954, 武藏野の集落.

교문화에 관한 각종 건물이나 시설, 즉 書院, 書堂, 享子(그림 6-(c)) 및 祠堂이나 여러 종류의 顯彰碑, 詩碑 등이 수많이 분포한다. 그것들은 경우에 따라 村落 한가운데나, 경치가 좋은 냇가나 山腹 등 各處에 위치하며, 韓國 村落景觀을 크게 특징지우고 있다. 고려시대까지 번영했던 불교문화는 조선시대의 排佛運動의 결과로 그 이후의 村落에서는 주요한 구성요소에서 脱落해 버렸다. 현재 대부분의 寺院들은 村落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村落景觀으로서는 겨우 남아 있는 石塔이 당시의 寺院 건물이나 불교문화를 전해줄 정도다. 유교적인 여러 시설들이 불교시설들을 驅逐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본다.

日本에서는 전통村落의 景觀을 특징지우는 주요한 요소로서 神社와 寺院을 들 수 있으며(그림 7), 그들이 村落의 核으로서의 기능을 가졌다. 村落內 各處에 여러 종류의 神社가 있으나 村落구성원 모두가 제사를 올리는 곳은 한데 밖에 없다. 그러므로 村落(共同體)의 범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神社와 그 祭祀集團(氏子, Ujiko)이 가장 適切한 지표가 된다. 神社는 “氏神(Ujigami)”라고도 한다. 따라서 원래는 土地神이 아니라 氏族神의 성격을 가졌던 것이다. 그러나 江戸시대에 와서 “氏神”란 말만 남게 되거나, 그 성격은 완전히 “土地神”으로 변해 버렸다.⁴⁰⁾ 寺院도 대부분의 村落에 있으며, 두 개 이상 存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江戸시대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寺院의 信者가 되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기독교 금지정책을 위해서). 그 당시에는 행정적으로는 戶籍을 만들지 않았으나, 戶籍 대신 각 寺院이 꼭 信者一覽表(宗門人別帳, Shūmon-ninbetsuchō)를 작성했다. 그것은 행정적인 주민 지배를 위해 사용되기도 했다. 따라서 江戸시대 寺院은 단순한 신앙의 대상만이 아니라 행정사무의 일부도 遂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또, 神社나 寺院은 村落 주민들이 모이는 곳이며, 集會場, 交流, 子弟 教育의 장소로서의 기능도 있었다.

韓國에서의 묘지는 一族마다 소유하는 경우가 많으며, 各處에 散在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日本 村落에서는 村落 공유묘지의 형태가 가장 많아서, 그것도 日本 전통村落의 “地緣性”을 알려 주는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 城隍堂, 堂木 등(그림 6-(a), (c))

韓國에서는 유교가 사회에 定着하기 전부터 있었던 신앙형태도 다양하게 남아 있다. 城隍堂은 대부분의 村落에 存在하며, 주민들의 신앙대상으로서 보편적인 것이었다. 洞祭는 城隍堂의 祭禮로서 올리는 것이며, 日本 村落에 있어서의 神社와 村祭에 비슷하다. 崔在錫은 “自然部落” 지표의 하나로, “洞祭를 共同으로 하는 範域”를 提示했으며⁴¹⁾, 여기에도 日本 神社와 공통되는 성격을 보여 줄 것이다. 그러나, 洞祭가 없었던 村落도 적지 않은 점이라든가, 祭禮는 常民들을 중심으로 했으며, 兩班들의 참여가 消極적이었던 점은 日本 村落과의 큰 차이였을 것이다. 城隍堂보다 日本의 神社가 村落사회에서 훨씬 큰 位置를 차지했다고 생각된다.

7. 結 論

이상과 같이 本稿는 韓·日 兩國의 전통村落을 몇 가지 側面에서 對比하여 그 유사점 및 차이점을 진술했다. 물론 概略的인 점을 제시함에 本稿의 목적이 있으며, 앞으로 더욱 詳細한 검토를 필요로 할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원래, 과학적인 “比較研究”를 논의할 때에는 “比較를 위한 척도나 기준”이 필요하다. 本稿는 아직 “素描”의 段階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韓·日의 전통村落을 “比較”의 視點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두 개 相異點을 강조해야 된다.

① 조선시대 村落 주민의 구성은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명확한 階層구조를 취하고 있었으며, 그것은 村落간의 階層구조로서 나타난 경우도 적지 않았다. 日本의 近世村落은 江戸시대 초기에 일단 “本百姓”에 의한 지연적인 공동체

40) 小野武夫, 1937, 전게서, pp.175~180.

41) 崔在錫, 1975, 전게서, p. 62.

로서 편성되었는데, 양쪽의 차이는 컸을 것이다. 筆者는 중국의 역사적인 村落구조에 관해서는 充分한 知識은 없지만 韓國 村落과 類似點이 많았다고 예상되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는 江戸 시대의 日本 역사가 특수한 選擇을 취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조선시대 사회에서는 사회적, 문화적으로 유교문화의 浸透, 定着이 극히 현저했기 때문에, 村落 구성요소나 村落景觀에 그 영향을 크게 미쳤다. 그 반대로 日本에서는 유교가 주로 지배층, 즉 “武士계층”의 교양, 도덕으로서의 意味 밖에 없었기 때문에, 村落 구성요소 중에 유교적인 요소는 거의 없었다. 精緻한 同族組織의 형성도 韓國 사회의 큰 특징 하나다. 그러므로, 兩國간의 村落구조의 차이는 단지 景觀상의 차이가 아니라, 사회조직적 측면에까지 이른다. 村落을 “地域集團”으로 생각할 때, 韓國村落은 地緣集團과 血緣集團과의 이중구조, 또는 對抗圖式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韓國 村落에 비교하면, 日本 村落은 地緣集團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日本에서도 同族集團이 새로이 개척에 종사하여 새로운 村落을 형성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일단 형성된

후 世代가 지남에 따라 地緣集團化하는 경향이 강했다. 韓國에 비교하면 強固한 同族組織이나 조상에 대한 祭祀組織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술한 “氏神”란 용어가 이러한 측면을 잘 말해 주고 있다. 筆者가 조사한 名古屋 東郊의 村落에는 여러 종류의 地域集團 중에, 일반적인 村落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강한 血緣集團이 남아 있으나, 그것은 비교적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시기(18세기 후반~19세기)에 현재와 같은 주민구성의 기초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⁴²⁾

크게 보면, 韓·日 兩國은 말할 필요도 없이, 농업은 稻作을 기본으로 하는 아시아적 생산양식에 기인한다. 따라서 농업생산물, 농업경영방식 등에 관해서는 비슷한 점이 많다. 또 村落규모, 村落형태 등의 측면에도 類似點이 적지 않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兩國 역사과정의 차이나 각 민족이 갖는 문화의 차이에 따라 村落구조의 본질적인 부분에 차이가 적지 않다. 따라서 비슷한 측면과 다른 측면을 짚 맞추면서 비교연구를 위한 適切한 지표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2) 拙稿, 1981, “セド”と“シマ,” 名古屋東郊における村落内小地域集團の事例研究, 歴史地理學, 第11號.

—, 1982, “名古屋東郊村落における村落内小地域集團—セド—の屋敷配置とその形成過程,” 愛知縣立大學文學部論集, 第32號.